



100번의 기억 '애꾸눈 광대'

5·18 부상자 이지현씨의 자전적 모노드라마 3인극·악극 등 2012년 이후 매년 업그레이드 상설작으로 다소 미흡... 지속공연 위해 변화해야

지난 2012년 첫 무대를 볼 때만 해도 이 작품이 긴 생명력을 가질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5월 광주라는 조금은 무거운 주제에, 정식 배우가 아닌 아마추어 한명이 이끌어가는 모노드라마 형식이라는 작품의 특성 때문이었다.

하지만 작품은 해마다 업그레이드 과정을 거치며 24일 100회 무대를 마쳤다. 연극 '애꾸눈 광대' 이야기다.

초연 당시 '애꾸눈 광대'는 5·18 현장에 있었던 이지현씨의 자전적 이야기를 이지현씨가 직접 무대에서 풀어낸 점이 화제였다. 1980년 5월 도청에서 시신을 수습했던 이씨는 농성동 쪽에서 계엄군의 폭행으로 눈을 다쳐 실명했다. 남동생은 버스터미널에서 시위를 하다 상무대로 연행당해 고문을 당했고 여동생은 5·18 때 희생된 '망월동묘역 묘지번호 114번'의 유가족과 결혼했지만 불행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의 개인사를 소재로 극본가 나창진씨가 희곡을 썼고, '금희의 오월' 등 오월극을 만들어온 극단 토박이 대표 신동호씨가 연출을 맡아 첫 공연을 가졌다. 이씨는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노래, 춤, 마술, 성대모사 등을 선보이며 홀로 무대에 섰다.

모노드라마로 시작한 애꾸눈 광대는 이후 2인극, 3인극으로 업그레이드 과정을 거쳤다. 올해는 연극인 이현영씨가 각색과 연출을 맡아 변화를 모색했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가족애'에 중심을 줬다. '애꾸눈 광대'는 초연 이후 서울, 부산, 인천, 전주,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공연됐고 2014년에는 일본 오사카 무대에 오르며 '광주의 오월'을 알렸다.

지난 23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에서 99번째 공연을 관람했다. 작은 소극장이기는 했지만 객석은 관객들로 가득찼다.

'악극' 형식을 빌린 2016년 버전은 5·18 당시 상황보다는 항쟁 현장에서 살아 남은 자에 초점을 맞췄다. 평생 죄책감과 괴로움을 간직한 채 자식 세대 만은 좀 더 나은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며 '민중화 운동'의 끈을 놓지 않았던 주인공과 그를 지켜보는 '가족'의 모습에 주목하고 세상을 향한 큰 힘인 '가족애'의 복원을 꿈꾼다.

주인공 광대는 80년 5월 도청에서 민청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하지만 도망을 가다 애꾸가 되고, 민청은 혼자 죽게 된다. 부채 의식을 갖고 있던 그는 결혼 후 아내 이름을 민철로 짓고, 제사도 대신 지내 준다.

또 서울에서 내려온 여동생을 민철의 형 민남과 결혼시키지만 순탄치 못한 결혼 생활로 힘들어 하던 그녀는 세상을 떠나고, 아들 민철과 아내마저 집을 나가 버린다.

자살을 시도하던 그는 꿈속에서 만난 민철과 인숙의 격려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잃어버린 꿈을 찾아 전국을 떠도는 광대가 되어 아들을 찾기로 다닌다.

이지현씨와 함께 젊은 애꾸눈 광대 역을 맡은 정이현씨를 비롯해 정일행, 강인영, 양선영, 최유정씨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배우들의 연기가 어우러지면서 작품이 풍성해졌다.

대중과의 소통을 위해 도입한 악극 형식은 장단점을 같이 드러냈다. 극 전체를 광대가 출연하는 쇼 형식으로 가져가면서 볼 거리를 제공한 점은 의미있었지만 정극 연기를 펼치는 주인공들이 '여자의 일생' 등 맥락없이 가요를 부르는 장면들은 작품에 대한 몰입도를 떨어뜨렸다.

'애꾸눈 광대'를 '오월 광주'를 대표하는 상설공연으로 선뜻 내놓기에는 작품의 완성도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100회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공연하기 위해서는 매년 업그레이드 과정을 거친 것처럼, 올해 버전 역시 수정 작업을 진행해야 할 듯하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100회를 이어올 수 있어 감격스럽습니다. 공연을 보러 와 주신 시민들께 감사하고 그분들께 조금이라도 감동을 드릴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애꾸눈 광대' 공연과 봉사활동을 지속하면서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작품은 제 아들처럼 가정과 사회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많은 '민철이들'을 위로하는 연극입니다." (이지현)

광주 마지막 공연은 오는 9월20일~21일 열리며 보성 채동선 음악당(9월23일), 강진아트홀(10월26일) 등에서 공연이 이어진다.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문의 062-670-794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빛이 깃든 디자인센터·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

공간 디자이너 최선희씨 '빛이 있는 공간디자인' 펴내



공간 디자이너 최선희 박사가 설계와 시공을 담은 작품집 '빛이 있는 공간디자인'(마음515)을 펴냈다.

그동안 '테마가 있는 공간', '풍경이 있는 공간', '스토리가 있는 공간' 등 공간디자인과 공간디자인' 등 공간에 초점을 뒀던 최 박사는 이번 작품집에서도 빛을 매개로 한 공간에 집중했다.

저자가 공간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는 이유는 건축가 루이스 칸의 "구조는 빛을 주고, 빛은 공간을 준다"라는 명언과 무관하지 않다. 즉 모든 사물과 공간을 최종적으로 지각하고 인지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빛이 필요하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책은 '전시공간' '공공공간' '사무공간' '주거공간'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각의 항목에 따라 설계와 시공에 참여했던 공간들이 담겨 있다.

먼저 전시공간에는 올해의 최고 베스트디자인으로 꼽히는 '광주디자인센터 우수성과 전시·홍보전', 동학혁명 당시 농민의 봉기 등을 구현한 '장흥서대들 전

시장 전시시설공사', 은행의 사료와 보전, 교육에 초점을 둔 '광주은행 KJB금융박물관 전시시설공사' 등이 있다. 공공 공간에는 긍정적인 추모공간을 상징한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추모관 & 남광당 설계, 시공', 어린이의 꿈과 미래를 콘텐트화 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 설계' 등이 포함돼 있다.

사무공간과 주거공간에는 각각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내부 리모델링공사', '전주·완주 혁신도시 B4BL공공임대아파트건설 공사중 사인물 공사' 등이 있다.

저자는 광주문화재단 '아비스프로젝트 마스터플랜' 중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의 플랫폼 AMT센터' 설계를 비롯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광주제일교회 110주년기념관' 등의 설계 시공에 참여했다. 또한 광주·전남여성벤처협회 초대회장, 한국공간디자인협회 초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베스트디자인 연구소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정애련 전남대 교수 퇴임 기념 '헌정음악회'

30일 전남대 예향홀

전남대 음악교육학과 정애련 교수의 정년 퇴임을 기념하는 '헌정음악회'가 오는 30일 오후 2시 전남대 예술대학 예향홀에서 열린다.

서울대 성악과와 아탈리아 로마 아트 아카데미 졸업 후 지난 1983년부터 전남대에 재직해 정교수는 33년간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내며 음악 교육에 힘써왔다. 이날 공연에서는 정 교수의 제자들이

함참곡 '그대 남긴 꿈', 'Think of me'를 들려주며 관현악앙상블로 '높은 나라'를 연주한다.

또 4학년 김유진 양이 오페라 '리골레토' 중 아리아를 부르며 피아노·타악·태평소가 어우러진 '산체스의 아이들'도 공연된다.

마지막 무대에서는 정애련학창단이 'Mother of mine', 'I Love Paris'를 들려준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포크그룹 '노래마을' 백창우씨 초대

'김원중의 달거리' 29일 음악산업진흥센터 피크뮤직홀

'김원중의 달거리'(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8월 공연이 오는 29일 오후 7시30분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 피크뮤직홀(옛 광주 KBS 총국)에서 열린다.

이번 달 초대 손님은 가수 백창우(사진)씨다. 포크그룹 '노래마을'을 이끌며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고 불러온 백씨는 오랫동안 '김원중의 달거리'와 인연을 맺어왔다.

이날 공연은 또 아카펠라 그룹 'The Present'(최원석·홍지수·한지은·김주

호), '우물만 개구리'(봉봉·라태양·쇼걸), 김원중과 느티나무 밴드(정은주·조성우·박우진·송기정), 여민동락 공동체 대표 김위원이 함께한다.

미디어 아트 작가 오재형씨가 무대 미술을 맡았으며 사진작가 리일천씨가 공연 현장을 기록한다. 공연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로비에 마련된 모금함에 정성을 보태면 된다. 수익금은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빵공장을 돕는 데 사용된다. 문의 010-3670-5802. /김미은기자 mekim@

CGV광주용봉점 2층 상가매매

체육관련업종(에어로빅, 체육관, 당구장) 병원, 학원, 미용실, 골프 아카데미 등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 2칸)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CGV광주점 2층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분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화순 도곡 무인텔 매매

최근 올 리모델링 객실28개 최상의 입지 및 현 성업중

- 매23억 (근저당 14억5천만원), 실투자 8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상기 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조정이 가능합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참숯구이 민물장어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솔향기 맑은터는 풍광을 자랑하는 그리고 혁신도시에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빠는날 화, 목, 토, 일 불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동,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참숯구이 민물장어와 숙지환 삼계탕을 개시합니다. 솔향기정식, 돼지갈비, 참숯구이 민물장어, 숙지환삼계탕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참숯가마 찜질방 / 족욕탕 / 참숯구이 민물장어 & 돼지갈비 전문점 / 노래방 & 동전노래방